

2. 가설 및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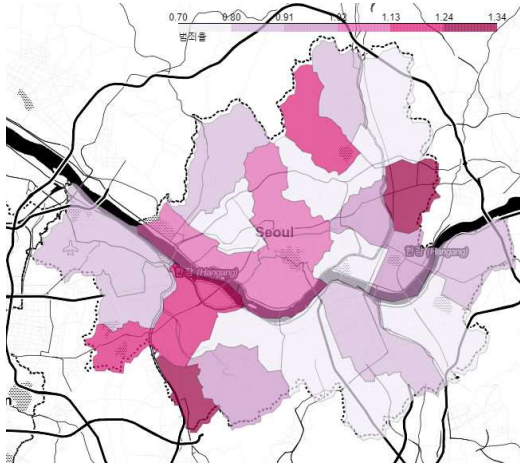
가설: 집값이 낮을수록 범죄율이 높다. (데이터의 기준은 19년 7월 1일이다.)

정의: 1. 집값은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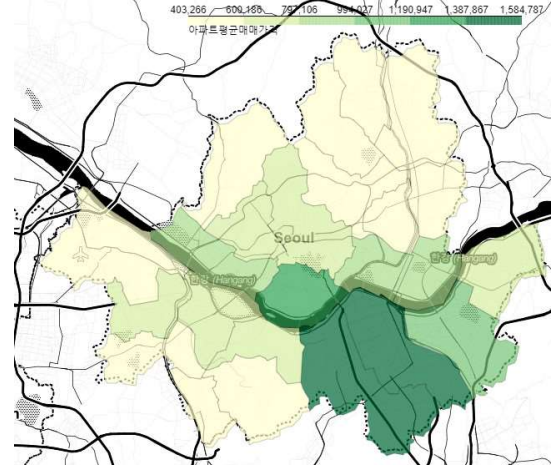
2. 범죄의 기준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5대 범죄이며 발생건수로 계산한다.

3. 범죄율은 범죄발생건수/(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이며 단위는 구 단위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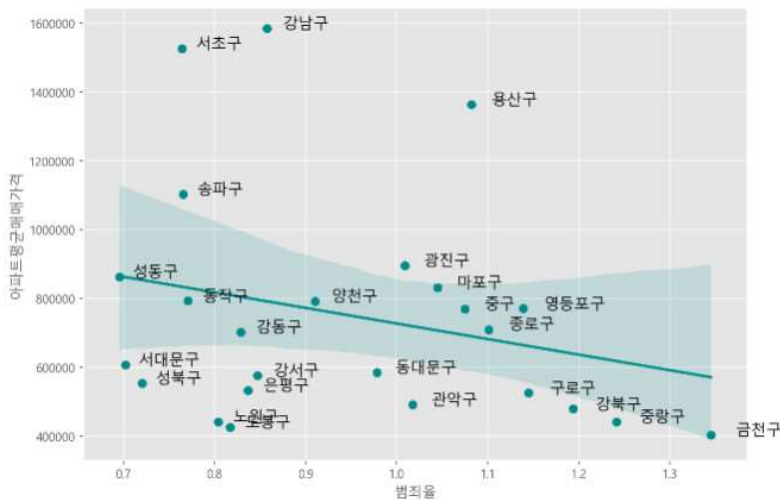
3. 가설 검증 결과



범죄율 분포 지도



아파트평균매매가격 분포 지도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높은 곳은 한강이남에 집중되어 있고, 범죄율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평균을 보면 집값이 낮을수록 범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서초구와 강남구 같은 일부 구역의 기형적인 집값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려 전체 데이터가 왜곡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범죄율과 집값은 약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예외상황이 많기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가설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예시: 금천구와 도봉구의 집값은 비슷하나

범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용산구는 집값이 3번째로 높은 편이지만 범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4. 검증 데이터

서울시 범죄현황 통계.xlsx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 통계

평균매매가격_아파트.xlsx 한국감정원

자치구단위 서울 생활인구 일별 집계표.xlsx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data/19194733>